

LG U+, LG트윈스 경기 응원 일일호프 데이

5G 망 8K 초고해상도 관람 프로모션

LG유플러스는 9일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스포츠팝에서 야구를 즐겨보는 고객 100명을 초대해 'U+5G LG트윈스 응원 일일호프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일일호프 데이는 LG유플러스 5G 망을 이용해 '2019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를 8K 초고해상도로 관람할 수 있게 마련한 이색 U+5G 프로모션이다. 이를 위해 곧 출시 예정인 LG전자 V50S 씽큐 20대를 마련, 테이블당 1대씩 제공한다.

지난 8월 말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프로야구 미디어 플랫폼인 'U+프로야구'의 생중계 서비스에 8K 초고해상도를 접목했다. 4K(UHD)보다 4배, 일반 방송에서 쓰이는 2K(FHD)보다 16배 선명하다.



스포츠팝에서 LG유플러스 고객이 한데 모여 LG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특히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기반에서만 이용 가능한 U+프로야구 앱 5G 특화 기능인 '8K 경기장 줌인' 서비스를 동시에 20대 이상 시연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야구장 전체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최대 8배가

지 늘려 경기장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 시작 전과 매 이닝 종료 후 쉬는 시간에는 이벤트를 통해 응원스틱, LG트윈스 정품 유니폼, 유광점퍼, V50S 등 경품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이노, 친환경PR캠페인 글로벌 1억 조회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편 환경 가치 지키는 경영전략 전달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담아낸 SK이노베이션의 기업PR캠페인 B2B 기업 광고로서는 이례적으로 1억 조회수를 넘어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친환경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회사의 성장 전략을 담은 기업PR캠페인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

스럽다' 편이 론칭 50일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B2B 기업 광고는 일반적으로 B2C 기업 광고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극복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으로 1억 조회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편 기업PR캠페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달성한 1억 조회수 중 국내 비율은 약 15%, 해외 비율은 약 85%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만의 1억 조회수도 이달 중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고객들 모두에게 통하는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는 광고 슬로건을 통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 경영 전략을 표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폴더블 폰, 그 다음은



기지수첩

구서윤 (산업부)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외형)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행복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폼팩터 변화의 큰 중심은 스마트폰을 접고 펼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는 화면 자체를 접었다 펼 수 있다. 펼쳤을 때 7.3인치 태블릿으로, 접었을 때는 4.6인치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하다. 화면이 넓기 때문에 이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가격은 239만8000원으로 웬만한 태블릿이나 노트북보다 비싸지만 앞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약판매에서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그만큼 폴더블이라는 폼팩터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으로 폴더블 폰 대결 구도에 합류했다. 듀얼스크린은 LG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폴더블 폰처럼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을 두고

실용적인 형태의 폴더블 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LG전자가 듀얼스크린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에는 삼성전자, 화웨이의 폴더블폰과 비교되며 혹평을 받았지만 1세대 제품은 뜻밖의 판매 호조로 배송이 두 달가량이나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듀얼스크린의 강점은 가격이다. 올해 초 출시된 첫 듀얼스크린은 21만9000원에 판매됐지만,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제품은 LG V50S 씽큐(ThinQ)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된다. V50S 씽큐는 119만9000원이다.

글로벌 시장도 폴더블 폰과 듀얼스크린 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화웨이, 샤오미, 모토로라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술력은 올라가면서 가격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매 시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다. 폴더블 다음 폼팩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yuni2514@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 9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복이 절로 굴러온다. **48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함이 이롭다. **60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7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할 날. **84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 3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49년생**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61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73년생** 밤을 이겨 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85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 38년생** 하루가 오늘만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50년생** 겨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 **62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74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86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있으니 기대가 크다.
- 39년생** 마음이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1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박을 챙겨라. **6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라. **75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87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4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2년생**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64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미리 거절하라. **76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88년생** 말이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 41년생** 고자가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53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65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77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89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해야.

- 42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된다. **54년생** 친구는 내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잘 챙겨라. **66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8년생** 어려운 일은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 **90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
- 43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55년생** 행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라. **67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79년생** 옛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 44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 **56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8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곱친다. **80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정화를 신어야 한다. **92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 45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57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69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 **81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 주는 사람이 없다. **93년생** 선배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양보.
- 46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 **58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0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82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자. **94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간의 정도 쌓인다.
- 47년생** 농천 고기가 커 보인다. **5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83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하라. **9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김상희의四季

유튜버 스타들

현재 핫하게 뜨고 있는 직업이 있다. 바로 유튜버이다. 유튜버는 유튜브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고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직업도 성별도 나이도 관계없이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대는 물론이고 할머니들도 어린아이들도 스타가 된다. 전국적으로 스타가 된 70대 할머니는 평생을 힘들게 살다 새로운 삶을 일궈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 할머니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게 운세이다. 지금 힘들고 나쁜 상황에 빠져있다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이유가 없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포기하는 건 자기를 스스로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과도 같다. 자기의 삶을 속단하거나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자방의원에 출마해서 두 번이나 낙선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으며 눈물을 쏟고 절망에 빠졌다. 무슨 말을 해줘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타타하며 자학을 이어갔다. 다음 선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불운의 수렁에 자기를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건 세상과 운세를 넓게 보는 눈이었다. 형국이 변하는 운세를 설명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렸다. 다시 힘을 내어 세 번째 도전한 그에게 당선의 기쁨이 찾아왔다. 지금은 많은 활동을 펼치며 활발히 뛰고 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야 꽃이 피는 사람도 있다.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꽃을 만나지 못한다. 운세(運世)란 변하는 것이고 그 물결에 언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앉게 될 것인가는 자신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4	9	5		
	5	3						
	4			6	8		1	
7							4	
	9		4		6			
	5							7
6		8	4				5	
				1		2		
5	9	2		8		1		

3		9				7		4
	8			7			6	
7			5		8			1
				6				
	3						5	
5		4				3		6
	6			4			7	
				1		2		
1	9			8			3	2

스도쿠 정답

8	2	1	4	9	3	6	5	7
9	8	7	6	1	5	4	2	3
6	5	4	3	2	7	8	1	9
2	3	6	8	9	7	5	1	4
4	1	9	5	7	4	6	3	8
8	7	5	1	6	2	9	4	7
1	4	8	9	5	6	1	7	3
2	9	3	7	4	1	5	8	6
5	6	7	2	8	3	9	1	4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1호